

기고

###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공공장 화재 막을 수 없을까?

이기호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들은 규모가 이전보다 대형건물이 많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공장화재로 이어지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공장에서의 용접으로 인한 화재일 것이다. 공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을 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용접작업 전 해야 할 일은 화기작업 공장장 내 관계인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작업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으로는 물통, 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화재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공장화재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환경오염 방지 등 일석 삼조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화재예방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며,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칼럼

### 부부는 평생의 반려자로서 가장 소중한 친구다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루며 더불어 살고 있다. 인간관계는 혈연관계로 피붙이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살붙이인 외척과 처족의 인간관계가 있으며 학연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 이웃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 직장 사업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서로 얽혀져 도우며 살고 있다. 모두 소중한 인간관계지만, 그중에서 누구와의 인간관계가 가장 소중한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통점이 있다. 소중한 인간관계를 알아보고 어느 강좌 시간에 교수가 한 여성에게 말했다.

“앞에 나와서 칠판에 아주 절친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으세요.”

여성은 시키는 대로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 20명의 이름을 적었다. 교수가 다시 말했다.

“이제 덜 친한 사람 이름을 지우세요.”

여성은 이웃의 이름을 지웠다.

교수는 또 한 사람을 지우라고 했고 여성은 회사 동료의 이름을 지웠다. 몇 분 후 칠판에는 네 사람 부모와 남편 그리고 아이만 남게 되었다. 교실은 조용해졌고 다른 여성들도 말없이 교수를 바라보았다. 교수는 여성에게 또 두 사람을 지우라고 했다. 여성은 망설임도 없이 부모 이름을 지웠다. 교수는 다시 또 하나를 지우라고 했다. 여성은 각오한 듯 아이 이름을 지웠다. 그리고 평평 울기 시작했다. 얼마 후 여성이 안정을 되찾자, 교수가 물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숨죽인 채 여성의 대답을 기다렸다. 여성이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나를 떠날 것이고, 아이 역시 언젠가 나를 떠날 것입니다. 일생을 나와 함께 지낼 사람은 남편뿐입니다. 반대로 남편도 역시 일생을 나와 함께 지낼 사람은 아내뿐입니다.”라고 말했으며 교수는 다시 말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주 좋아도 남편↔아내 사이만큼 좋을 수 없습니다

다. 세상에 친구가 좋아도 남편↔아내 사이만큼 좋을 수 없습니다. 높고 병들면 당신을 도와 줄 사람은 당신의 남편↔아내뿐입니다. 남은 시간은 부부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가야 할 길이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끼며 삼시다. 존경하며 삼시다. 사랑하며 삼시다. 행복하게 삼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남남끼리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부부는 서로 반쪽이 합해져 하나가 된 것이며 무촌이다. 이처럼 소중한 부부이지만, 항상 한집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죽으면 그때야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두고 쓸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부부다. 부부처럼 가까운 친구를 노후에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돈은 기본이고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가 부부다. 부부는 남남이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며, 사랑은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서로 주는 것이 없는 말 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오고 가는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친구 간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사랑해야 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내 몸처럼 돕는 사랑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장수한 사람들을 조사 해 본 결과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주 만남이 있어야 하고 오고 가는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노후에 할 일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만남의 일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가까이 더욱 가까운 친구를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만남이 없으면 친구위에서 멀어지며 가장 가까운 친구인 부부는 항상 가까이 더욱 가까이 살아야 한다.

기고

### “나보다 시작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김정원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학버스 신고 의무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종합보험 가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등이다.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취약지역 위주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동안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노란색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펜스) 확대 설치 등으로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년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우리 어른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사회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받는 세상이라면 그 누가 보더라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매년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이기심이 불러오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운행을 하다 보니 어린이 교통사고들이 현실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취지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은 8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7주간) 경찰, 지자체, 교육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어린이통학버스 주요 점검내용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어린이통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부형 압력 등 편견된 침해보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엔프레스